

1월 2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 본문 말씀: 요한복음 2:7~10 (1월 6일 본문)
- 포인트: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시며, 우리 삶에 기쁨이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1. 기도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해 주세요.

2. 찬양

(경배와 찬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3. 말씀

요한복음 2:7~10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세 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주라 하시매 갖다주었더니 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우리말성경>

7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8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9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 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10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 두었군요.”

≡ 본문 이해

가나 지역의 한 결혼 잔치에서 포도주가 바닥났어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그 물을 연회장(잔치 책임자)에게 갖다주라고 하셨어요. 연회장은 물이 변해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신랑을 칭찬했어요.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쁨이 계속되게 하시는 분이예요.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은 첫 번째 표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나 지역에서 열리는 한 혼인 잔치에 초대받았어요.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일주일 동안 혼인 잔치를 열었어요.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축복과 번영을 상징했고, 잔치에서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런데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알렸어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에 쓰는 돌항아리 여섯 개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정결 예식은 유대인들이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나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일이며, 부정해진 가구나 그릇을 씻는 일이었어요. 그곳에 있던 돌항아리는 하나에 물이 약 80~120리터나 들어가는 커다란 항아리였어요. 하인들은 이유를 묻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물을 입구까지 가득 채웠어요. 하인들은 그 물을 떠서 잔치를 맡은 책임자(연회장)에게 갖다주라는 예수님 말씀에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고는 정말 맛있는 포도주를 내어 왔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 일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만 아는 놀라운 기적이예요. 요한은 이 일을 단순한 기적이 아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알리는 신호인 '표적'이라고 소개해요.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예요. 예수님은 부족하고 불안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 4. 나눔

1) 연회장은 몰랐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 알았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요?(7~9절)

■ 저학년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랐던 하인들은 어떤 일을 경험했나요?(7~9절)

■ 유아·유치

예수님과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하인들만 알았던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나요?(9절)

□ 질문 가이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항아리에 물을 채운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준 내용을 순서대로 되짚어가며 생각해 보세요.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 물을 떠 연회장에게 갖다주며 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을지도 나누어 보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예수님은 혼인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잔치의 기쁨을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자 예수님은 그 물을 떠다가 잔치를 책임지는 연회장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셨어요. 이번에도 하인은 말씀대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주었어요. 하인이 가져다준 물을 맛본 연회장은 정말 맛있는 포도주라고 칭찬했어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잔치의 기쁨이 계속되게 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붓고 또 연회장에게 떠다 준 하인들은 이 모든 과정을 알고 특별한 경험에 동참한 사람들이예요. 가나 혼인 잔치의 표적은 예수님이 슬픔과 불안과 고통이 가득한 삶을 기쁨의 잔치로 변화시켜 주실 메시아 곧 하나님 아들이심을 보여 주는 사건이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늘 한계에 부딪히는 우리 삶에도 찾아오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되도록 도와주세요.

2) 나 자신과 가족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일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 저학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할 일은 무엇인가요?

■ 유아·유치

매일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을 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께 소리 내어 감사 기도를 드려요.

□ 질문 가이드

예수님이 혼인 잔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신 일들을 생각해 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예를 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드릴 수 있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안전하게 돌아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주님께 나와 가족의 필요를 믿음으로 구해 보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슬픔과 고통이 있는 자리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자리든 함께하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요.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을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해 보세요. 우리와 함께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주님은 우리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되기를 바라세요.

5. 감사하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시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세요.

6. 기도

주님, 저희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맞닥뜨리는 문제 앞에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해 주세요.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한 저희 삶에서 사랑의 주님이 오롯이 드러나길 원합니다.